

'중국'의 시각: 조선, 대한제국, 그리고 '일본의 조선'

—1870년부터 1919년까지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차 태근*

<목 차>

1. 19세기이전: 宗藩중심의 조선관
2. 19세기 중반-갑오경장: 조공체제와 근대국제법의 이중주
3. 대한제국시기: '배신'과 '운명적 거울'
4. '일본의 조선'시기: 지배역사의 기억과 혈맹
5. 나오며: 민족역사에서 트랜스로컬 역사로

1. 19세기 이전: 宗藩 중심의 조선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한반도와 대륙의 관계사 속에서 중대 변화가 일어났던 시점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현대 중국인의 시각이 정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1870에서 1919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시간으로 보면 그리 길지 않은 반세기 동안, 소위 "중국"¹⁾과 한반도의 관계는 복잡한 굴절과 애증의 골로 점철되어 있으며, 동아시아 근대의 비극성을 숨김없이 그 자체로 드러내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다. 중국이나 한반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는 바로 희망과 좌절

* 高麗大 中文科 講師

1) 소위 "중국"이라는 호칭이 단순히 현대 특정국가에 대한 지칭이 아닌 역사적으로 특정지역에 존재해왔던 국가에 대한 통칭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니고 있는 내포와 외연의 범위는 여전히 불확정적이고 논란거리이다. 이는 한반도 지역에 존재했던 국가를 통칭하고자 할 때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논의를 삼고, 단지 편의적인 의미에서 중국과 한반도라는 용어로서 통칭하고, 그 지역에 존재했던 역사상의 특정 국가를 말할 때는 역사의 통례를 따르고자 한다.

이 교차하는 가운데 각기 자신의 생존과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해 분투하던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위한 분투는 바로 동아시아, 넓게는 세계의 각기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의 핵심에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소위 “세계체제”의 모순성을 고스란히 꺼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즉 제국주의적 팽창을 중심으로 인종간, 지역간, 민족간 그리고 종교를 포함한 문화간의 충돌은 이 지역국가의 생존과 정체성을 둘러싼 문제에 깊숙이 삼투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과 한반도가 새로운 역사적 조건 속에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과정은 곧 두 지역간 상호관계의 변화를 수반하였으며, 그 변화는 바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근대의 운명을 극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19세기 중엽이후 중국과 한반도의 상호관계 내지 그 인식을 살펴보려면 우선 그 이전의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상호 인식 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이전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듯이 華夷이라는 세계 인식 패러다임에 기초해 있다. 즉 華夷는 중국이 자신을 중심으로 주변세계를 이해하고,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던 인식체계라 할 수 있다. 물론 華夷라는 것이 지리적, 인종적인 것인지 아니면 문화적(문명과 야만)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어 왔지만, 장타이엔(章太炎)은 “華夷”의 “華”를 지역적, 인종적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으며, 이후 중화민족의 통치체제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타민족의 歸化를 수용하고 있다. 즉 華의 핵심을 종족주의는 아닐지라도 중화의 통치권을 승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귀화를 포용하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華는 이제 지역적, 인종적 차원의 의미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정치적 의미가 중심으로 떠오르는데, 이는 19세기 서구식 “근대-민족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 이에 반해 입헌파, 특히 강여우웨이(姜瑜)는 華夷를 문명적 차

2) <中華民國解>, 《民報》제 15호, 1907년 7월 5일. 이 글은 清朝에 반대하는 혁명운동시기에 漢族중심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고, 강여우웨이와 량치차오등의 清朝를 중심으로한 입헌제를 비판하기 위해 쓰여진 것으로, 그 가운데 비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華夷론을 둘러싼 해석문제이다. 장타이엔에 따르면 中華는 원래 華陰의 서북과 華陽의 서남을 경계로하는 “華” 지방을 중심으로 한 夏 민족의 국가를 지칭하였으며, 이후 秦漢에 이르러 그 외연이 확대되어 지금 중국의 기본틀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中華의 실제적인 영역은 바로 진한 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장타이엔은 중화민국의 경계는 마땅히 월남과 한사군이 설치되었던 조선의 두 개의 군(평안도와 함경도)을 포함하는 것이 이에 맞지만 현실여건상 이는 불가능하고 明朝때의 각 省에 西藏, 回部, 蒙古를 합친 경계를

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즉 華의 字意를 문명 내지 문화의 의미로 보고, 19세기 이전에는 禮敎를 중심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이후는 서구근대 문명을 기준으로 華夷여부를 가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만주족을 포함하여 중국 예교에 동화된 민족은 모두 華에 속하며, 華를 단순히 인종주의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하여 만주족을 배척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나 문화의 정통성으로 보나 근거가 없다고 그는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두 해석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가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장타이엔도 인정했듯이 중국은 역사적으로 禮敎와 덕치를 중심으로 華夷를 해석해 왔으며, 여기에 독특한 天下觀과 국가의 안과 밖을 가름하는 中의식(中國의 문자 그대로의 함의)이 가해져 중국과 주변국가내지 민족의 관계질서를 형성해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념적 차원에서 의 예교중심의 화이관과 현실주의 차원의 지역적, 인종적 화이관이 상호 중첩되면서 복잡한 중국 중심의 지역체계(당시로는 세계체계)를 이루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세기 이전 중국의 한반도에 거주하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소위 “東夷”론과 “朝鮮”론(고조선을 말함)에서 그 기본적인 형태가 갖추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夷와 조선은 개념과 대상에 모두에 있어서 지시대상의 범위가 다르지만, 조선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은 바로 東夷에 대한 인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³⁾ 중국 고대 문헌 속의 夷는 때로는 華에 대한 오랑캐를 가리키는 통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東夷를 가리키는데, 혹은 달리 九夷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고대 전적은 東夷에 대해 西戎, 南蠻, 北狄과는 달

현 경계로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선과 월남에 대해서 의식주방면의 생활풍속이 중국과 유사하고, 문자가 서로 통하며 혈통이 섞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3) 東夷와 조선은 직접 연계시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南朝宋의 範曄가 지은 <<後漢書·東夷列傳第七十五>>를 들 수 있는데, 그 “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昔箕子違夷殷之運, 避地朝鮮. 始其國俗未有聞也, 及施八條之約, 使人知禁, 遂乃邑無淫盜, 門不夜扃, 回頑薄之俗, 就寬略之法, 行數百年, 故東夷通以柔謹爲風, 異乎三方者也. 苟政之所暢, 則道義存焉. 仲尼懷憤, 以爲九夷可居. 或疑其陋.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 亦徒有以焉爾. 其後遂通接商賈, 漸交上國. 而燕人衛滿擾雜其風, 於是從而滌異焉. <<老子>>曰: “法令滋章, 盜賊多有.” 若箕子之省簡文條而用信義, 其得聖賢作法之原矣!”

리 주변민족 중에서도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용어로 말하자면 일종의 “개화된 오랑캐”, 혹은 “개화된 주변민족”의 함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개화란 중국의 유교식 예교를 기준으로 말한 것으로, 《論語》(《論語·子罕第九》), 《孟子》(《孟子·離婁下》)와 같은 유가경전에 東夷는 孔子, 文王, 舜과 같은 고대 “성인”과 연관되어 서술되고 있다. 그 중 공자의 “欲居九夷”설이 대표적이며 이는 중국인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東夷에 대한 각별한 유대감 내지 친밀감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친밀감은 이후 조선에 대한 서술에서 조선의 “내지화”로 볼수도 있는 역사서술로 이어진다. 즉 공자가 殷의 “三仁” 가운데 하나라고 부른 “箕子”의 조선설이(《史記·宋微子世家第八》) 그것이다. “기자조선설”의 역사적 사실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지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초기 저서들, 예를 들면 《尙書大傳》, 《史記》등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상의 모순점들을 통해 볼 때, 그 내용이 허구거나 아니면 상당히 윤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全海宗의 《中韓關係史論集》참고) 그리고 기자조선설에 이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衛滿 조선설과 한무제의 한사군설치, 중국인의 辰韓 이주설로 이어지는 역사서술은 조선 및 그 영토에 대한 중국문화와 혈통, 그리고 통치권의 확대라는 중화사상의 고유한 “근원주의” 및 “복사(輻射)주의”를 드러내는 본보기라 할 수 있다. 《史記》에서 《後漢書》로 이어지는 이러한 역사 서술은 이후 중국 역사서의 한반도 민족 및 국가에 대한 서술의 모델이 되었고, 중국인의 한반도에 대한 특수한 감정과 인식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역사서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서술이 중국인의 한반도 지역 국가에 대한 인식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는 과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의 문제점은 사실성을 둘러싼 논란이외에도 대외인식에 있어서 중국 중심주의와 중국과 관련된 지점만 역사서술의 시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며, 중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독자적인 역사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 내지는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의 한반도 지역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또 지적해야 할 것은 華夷觀에 기초해 있으면서도 중국의 현실주의적 대외인식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관계체계인 朝貢 및 宗藩관계이다. 조공의 역사는 秦漢이전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만, 역사적으로 그 형식체계가 완정하게 형성한 시기는 위진남북조시대를 거쳐 隋 唐시대로 어렵다. 조공은 조공국이 중국의 그 지역 국왕에 대한 승인과 책봉을 받아들이고, 국왕 교체나 경축, 위문, 사은 등의 명목으로 중국황제를 조현(朝見)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형식은 바로 중국과 조공국간의 종번관계를 승인하는 것이며, 정치적인 상징적 의의(즉 “以小事大”라는 禮에 근거한 외교관계)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공국의 입장에서 보면 조공은 정치적 의의보다도 경제적인 요인(조공형식을 빌린 무역)에 더 동기가 있으며, 조공질서는 바로 중국의 정치적, 상징적 요구와 조공국의 경제적 요구가 결합하여 형성된 지역체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군사적인 요인이나 문화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는 대체로 부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이후부터 조선말까지 중국과 한반도의 국가간의 관계는 바로 이 조공관계에 의해 규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조공관계에 종속적인 합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대적인 식민관계가 아니라, 조공국은 내정이나 외교 등에 있어서 자주권을 행사하였고, 정치적 내정간섭이나 국경문제 등이 발생할 때는 조공국이 조공체계를 거부하거나 중국에 대해 대립하는 등 조공체계내에 긴장요소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고조선과 한의 대립, 고구려와 수당과의 대립, 통일신라와 당, 고려와 금, 원 및 명과의 갈등, 조선과 청과의 갈등 등은 바로 조공체계의 정치, 경제 및 국경문제 등을 처리함에 있어 불평등한 관계 내지는 지배관계를 거부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어떠하든, 이러한 조공-종번관계는 바로 중국이 한반도 지역의 국가나 민족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인식틀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明의 萬曆때 嚴從簡이 지은 《殊域周咨錄》에 나오는 조선에 대한 서술이다. 여기에 그 서두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은 周가 箕子를 책봉했던 곳으로 “朝鮮”이란 동쪽에 위치해 있어 아침해가 선명하다는 의미를 취해 부른 것이다. 秦이 요동을 복속시키고, 漢초에는 燕 사람인 衛滿이 그 곳을 점하였다. 그 후 漢武帝가 그를 평정하고 眞蕃, 臨屯, 樂浪, 玄菟 사군을 설치하였고, 漢말에는 公孫度가 요동에 府行牧事를 설치하였다가 魏에 의해 멸망하였다. 晉의 永嘉때 夫餘의 한 종족의 우두머리 高璉이 그 지역을 점령하여 고려왕(고구려왕)이라 칭하고 평양에 도읍을 정하였는데, 이때부터 비

로소 外國의 영토가 되었다(始列化外). 그 후 唐이 고구려의 평양을 정벌하여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五代때 王建이 高씨를 대신하여 영토를 더욱 넓히고 옛 신라와 백제를 병합한 후 송악에 도읍을 정하고 평양을 서경이라 불렀다. 그 후 대대로 송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으며, 또 遼와 金에도 조공하였다. 元에 이르러 至元 때 西京을 복속하고 東寧路總管府를 설치하고 慈嶺을 국경으로 삼았다.

이상이 비록 元말까지지만, 한반도 지역 국가에 대한 중국의 전형적인 서술방식이다. 19세기 이전에 나온, 중국의 한반도 지역 국가에 대한 서술 중 가장 상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殊域周咨錄》은 고구려 이전의 한강이북 지역에 대해 중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후 唐과 元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지배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고려 공민왕에서 조선 전기까지 조공을 중심으로 한 외교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결국 역사화 된 상상과 조공관계, 특히 한반도의 중국 유가문화와 제도, 사상에 대한 수용 및 발전은 문화주의적 경향이 강한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내의 국가와 민족에 대해 다른 四夷와는 다른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게 하였다. 즉 宋의 趙汝适은 新羅를 군자의 나라라고 불렀고(《諸蕃志》), 嚴從簡은 箕子의 교화와 예교를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반도를 異種으로서 경계하거나 중국과 다른 풍속에 관심을 표하기도 하였다. 이는 바로 중국인이 바라보는 한민족의 형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그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용맹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며, 청결을 중시하고 술과 가무를 즐기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형상은 고구려, 마한, 진한 등의 풍속에 대한 서술 속에 이미 정형화되어 이후 조선인에 대한 묘사 속에서 반복해서 출현하고 있다. 특히 淸의 陳壽가 편찬한 《三國志·魏書三十·烏丸鮮卑東夷傳第三十》은 고구려에 대한 서술에서 “성격이 난폭하고 급하며”, “밤에는 남녀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춘다”고 하였는데, 위의 《殊域周咨錄》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민간에는 떠도는 여자가 많고, 밤이면 남녀가 모여 놀다가 서로 좋으면 결혼한다”고 묘사하고 있다. 즉 조선에 대한 설명을 고구려에 대한 묘사에 근거해 추측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중국인과 비교하여 다른 이러한 특징들은 바로 異種은 마음 또한 다르다(心異)는 경계심을 낳게 하였고, 한반도 국가에 대한 정복과 통제의 욕망을 생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 19세기 중반-갑오경장: 조공체제와 근대국제법의 이중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관련하여 사전에 확인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그 시기의 특수한 인식조건이다. 이 시기만큼 한반도가 중국의 운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우를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宋말이나 명말기에도 한반도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중국의 운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이전의 중국과 한반도의 군사적 관계는 주로 대륙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을 회복하고 나서 주변국경을 확대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한반도의 국가는 대륙의 혼란기에 끊임없이 그 국경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도모했고, 이것이 대륙이 통일된 후에 바로 정치적,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부분 중국과 한반도 쌍방의 의지와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되었다.

19세기말의 정황은 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첫째, 중국은 북방이나 서역의 단 방면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외세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내적으로도 민족 간의 갈등이 날로 심해가고 있었다. 둘째는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청조는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방민족으로서, 송이나 명처럼 위기시에 북방을 포기할 수 없는 특수사정이 있었다. 세 번째, 한반도의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한반도 국가 간의 상호 패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나 일본, 영국과 같은 주변의 복잡한 이해 및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외에도 전통적인 조공-중번체제에서 국제조약체제로의 변화는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몇 가지 조건만으로도 19세기말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 내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 특징을 중국과 한반도의 양국간의 고립된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세계체제 속의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場이라는 시각에서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보도록 요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

는 1880년 일본에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에게 황준센(黃遵憲)이 준 《朝鮮策略》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단순히 황준센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시 北洋大臣 리홍장(李鴻章)과 중국의 주일본공사 허루장(何如璋)등의 공통된 동북아정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고, 參贊으로 일본에 가 있던 황준센이 허루장의 명을 받아 저술한 것이었다. 《朝鮮策略》에서 황준센은 조선이 택해야 할 외교 책략으로서 우선적인 목표는 바로 러시아의 南進에 대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중국에 친화(親), 일본과 동맹(結), 미국과 연합(聯)을 통해 자강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말미에서 재삼 강조하기를 “조선의 宗社가 여기에 달려있고, 아시아의 大局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황준센이 말한 조선책략이란 기실 중국책략이라고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⁴⁾ 당시 일본에서는 명치유신 이후로 征韓論이 대두되고, 조선과의 강화조약을 통해 중국 통치영역에 대한 명백한 도전 의사를 보내고 있었지만, 중국이 보기에 일본은 미래의 적일 수는 있지만 아직 눈 앞의 적이 아니었고, 당장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러시아였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북방의 기나긴 국경을 접하고 있었고, 부동항을 위한 러시아의 동북아 남진정책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즉 조선은 바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명맥을 좌우하는 지점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당장은 러시아를 상대로, 길게는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하여 조선을 “보호”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보호”의 방식문제이다. 황준센의《朝鮮策略》이 목적하는 바를 다시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조선을 중국과의 종번관계 속에 묶어둠으로써 중국의 안전을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 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리홍장의 미국, 영국 등 유럽의 힘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세력 팽창을

4) 1880년대 중국의 조선에 대한 책략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것은 당시 러시아 公使로 가있던 劉瑞芬과 강여우웨이의 조선 중립화이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내의 자주권 회복운동에 자극받은 것도 한 이유지만, 劉瑞芬은 1886년 리홍장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조선에 대해 조선을 완전히 중국에 병합하거나 아니면 영국, 미국, 러시아등과 공동으로 보호하는 두 방안을 제시한 후, 후자에 대해서 러시아와 미국의 외무부 역시 동의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리홍장 역시 동정적인 의사를 표하지만, 청정부가 조선은 중국의 번속국임을 내세워 반대하여 무산되고 만다. 이러한 조선중립화에 대해서 강여우웨이 역시 조선에 대한 세가지 책략중의 하나로 제기하고 조선을 합병하는 것(中策)과 藩屬이라는 명분을 유지하며 실제로 통상의 자주권을 주는 방책(下策)에 비해 벨기에처럼 만국의 공동보호하에 두는 것이 上策이라고 주장하였다. 蕭一山,《清代通史》(3), p.1144. 《康有爲遺稿》, 上海人民出版社, p.34.

억제하는 이른바 “以夷制夷” 전략이다. 이를 위해 황준선은 조선이 역대로 중국의 藩屬이었고, 중국이 다른 주변국가에 비해 조선에 대해 상대적인 우대정책을 펴온 것 등을 강조하며, 중국의 울타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조선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미국 등과 수교를 통한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곧 조선정부에 의해 수용되었고, 그 결과 미국과의 조약을 필두로 영국, 독일 등 서방 제국과의 교섭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근대적 조약체결과 宗藩관계의 상충성으로, 이는 조선의 자주권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1863년 丁韪良(Martin, William A.P., 1827-1916)이 漢譯하여 이후 조선과 일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萬國公法》에 의하면 당시 세계 각 국은 크게 자주적 국가와 半자주적 국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후자는 주로 조약등 명시 규정에 의해 타국의 보호를 받거나 내정, 외교등에 있어 지시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宗藩관계에 있는 藩屬국가가 모두 半자주적 국가인 것이 아니라, 주권행사의 정도에 따라서 자주국인지 半자주국인지가 결정된다. 이는 宗藩이나 조공관계가 주권상의 종속관계가 아니라, “以小事大”라는 국가간 禮의 상징적 관계이거나 아니면 경제적 이해를 위한 약소국의 강국에 대한 특수한 외교 관계(일종의 약소국의 강국에 대한 주권행사 방식)로 볼 수 있음에 기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이 중국에 대해 종번관계나 아니면 자주적 주권국인가는 상호 병존과 조정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조선과 중국이 역대로 종번관계였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실제적인 종속관계로 간주하려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조선의 내정과 외교 등에 있어 자주권을 인정하고 상징적 종번관계만을 주장하는 등, 양자사이를 오가는 모순된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것의 상징적인 예가 바로 1882년에 체결된 “조미통상조약”인데, 중국은 제1조항에 “조선은 역대로 중국의 藩屬국가이며 내정과 외교방면은 자주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명시하려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제1조항은 비워둔 채, 조선왕이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은 중국의 藩屬국가라는 성명을 통지하는 것으로 타협되었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그러나 중국은 같은 해 조선과 체결한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에서 조선은 중국의 藩屬국가이며, 중국이 다른 국가에 대하는 것과 달리 藩屬국가를 특별 우대하

는 의미에서 章程을 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률, 관세등에서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北洋大臣의 지위를 조선왕과 대등하거나 심지어 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기할 것은 商務委員을 조선에 파견한다는 章程에 근거하여 중국은, 1885년 천수당(陳樹棠)에 이어 26살의 위엔스카이(袁世凱)를 파격적으로 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大臣에 임명, 파견했는데, 위엔스카이는 1894년까지 대략 10년동안 조선에서 중변관계를 강화하고, 내정을 간섭하여 조선의 자주운동을 더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이 10년 동안은 바로 리홍장, 위엔스카이, 허루장등을 중심으로 조선과의 중변관계를 근대적 속국의 관계로 전환하려 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1880년 11월 18일 중국의 주일본공사 허루장이 총리아문에 올린《主持朝鮮外交議》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서구의 속국을 보면 모두 그 정치를 주관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조공(貢獻이라 하고 있다)국에 대해서는 속국이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 서구의 통례를 보면 속국과 半主權국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는 대부분 그 통치국이 주관하고 있다. ……이제 조선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게 하면, 타국은 모두 그를 자주국이라 여기게 되어, 중국의 속국이라는 이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일시 급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후일에 후환을 남겨두는 것과 같은 것으로 미리 방비책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중국이 조선의 외교 및 조약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清季中日韓關係史料》)

그러나 1894-1895년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하여 중국의 이상과 같은 책략은 실패를 고하고 중국과 조선의 관계는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그 과정을 보면:

1894년 8월 15일: 조선정부 모든 조중조약 철폐 선언.

1895년 1월 7일: 조선 고종 종묘를 참배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을 철저히 단절하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확립한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 “洪範十四條”를 선언.

1895년 4월 17일: 중일간 “馬關條約” 체결. 그 중 제 1항은 “중국은 조선국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승인한다”는 내용임.

1896년 11월 18일: 중국 唐紹儀를 駐朝총영사로 파견

1897년 10월 12일: 조선 대한제국으로 국호 개칭.

1898년 8월 13일: 중국 徐壽朋을 公使라 할 수 있는 주한홍차대신으로 파견

1899년 9월 11일: 한중 “통상조약”체결.

이상 5년 간의 변화는 바로 한반도가 중국과의 중변관계를 철폐하고, 근대적인 국제조약을 통해 상호평등한 관계를 정립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조선의 脫중변체제는 일본과 중국간의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싸움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중국의 한반도 국가에 대한 태도나 시각 또한 이를 기점으로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이에 대해서 후술) 그러나 1895년부터 1904년 러일전쟁까지 한반도는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개정하고 러시아, 일본 등 외세의 틈바구니 속에서 중립화를 선언하는 등 생존을 위한 전략을 도모하지만, 일본과 러시아의 밀약에 의한 양국의 “공동보호”상태를 맞게 된다. 그리고 러일전쟁이후 일본은 본격적으로 한국의 강제 합병수순을 밟고, 1905년 제 2차 의정서와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이른바 “일본의 조선”시대로 접어든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면과 함께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 또한 재차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속 에서 중국의 조선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⁵⁾ 먼저 1843년 徐繼畬(1795-1873)이 편저한 《瀛寰誌略》을 보면 조선

5) 이후는 주로 1870년도에서 1919년까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이전의 개인적인 저서나 국가의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만이 중국의 조선에 대한 태도 및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1896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신문과 잡지는 당시 급변하는 한중관계 속에서 중국인의 조선에 대한 시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1895년 이전에도 이미 《申報》, 《萬國公報》, 《上海新報》등 신문, 잡지등이 발행되고 있었지만, 그 편집인 및 기고자가 대부분 중국인이 아닌 서구인이라는 점에서 중국인의 시각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1895년 이전에는 주로 개인저서나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이후는 신문, 잡지등 매체를 통해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을 분석하고자 한다. 1896년을 기점으로 한 이러한 분석대상의 차별화는 상기 조건이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즉 1895년 이전에는 주로 官과 민간의 관점이 일치하던 것이, 그 이후부터는 관과 민간이 관점상에서 불일치 내지는 차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세기 들어 개혁세력간의 입헌파와 혁명파의 분화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20세기 들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시각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箕子之遺封”)을 新疆, 青海, 西藏, 內外蒙古와 함께 “皇清一統輿地全圖”속에 분류하여 중국의 準내지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日本과 琉球國, 그리고 安南은 별도로 東洋二國과 東南亞諸國에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명대(英宗)의 李賢 등이 편찬한 《大明一統誌》를 답습하면서도 일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비슷한 시기의 魏源이 편저한 《海國圖誌》역시 이 점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이는 청조당국과 사대부들의 조선에 대한 시각이 명대 때의 관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870년에서 1895년 사이의 중국의 조선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바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에 대한 전통적인 宗主國의 관점에 의거해 있으며, 수시로 변하는 주변정세에서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과 의지에 근거해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대까지 중국과 한반도의 종번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以小事大”, “事大以禮”라는 “禮”에 근거한 정치적 상징성에 있다. 그리고 중국이 조선을 近隣중 문화와 감정상에서 가장 친밀한 국가로 보는 것이 바로 정치적 예측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禮”중심의 종번관계와 서구의 근대적 “公法”에 근거한 조약체제는 당연히 그 성격상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종번관계의 형식하에 조약체제를 통해 보장되는 “중주국”의 지위를 보장받고자 하였고, 이것이 결국은 중국이 강국의 외세와 한반도를 둘러싼 조약체결 속에서 거둬들이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이는 바로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환경변화와 서구의 근대적 조약체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상에서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의 주요한 예로서 1866년 조선의 천주교 박해와 미국의 서면호사건으로 인해 프랑스와 미국이 각각 중국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중국은 모두 조선은 비록 屬國이지만 그 내정과 외교에 대해서는 자주권을 가지고 있어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과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876년 운양호사건(1875년)을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일본의 간접적인 그러나 의도적인 질책을 부정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에 근거하여 일본은 같은 해에 조선과 “강화도조약12조”를 체결하게 된다. 그 중 제 1조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지닌

다”는 내용이다.

중국의 종번체제와 근대적 조약체제간에 존재하는 개념의 차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일본의 집요한 외교공략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종번체제를 식민체제로 전환하지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미 앞의 각주에서 소개한 바처럼 조선을 중국에 병합하지는 주장이 그 예인데, 1882년 임오군란으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야심을 노골화하자 당시 일본공사로 있던 黎庶昌역시 보고서한에서 이후 조선의 문제로 중일간의 전쟁이 불가피함을 예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 한 것처럼 조선의 왕을 폐하고 직접 군현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설파하고 있다. 즉 청의 조정이 仁慈하여 이를 허락지 않고 있으나, 금일의 사태를 비추어 보건대 조선의 식민지화가 합당하다는 것이다. (《清季中日韓關係史料》, 이후 별도의 각주가 없는 것은 이 자료에 근거한 것임) 이러한 반응은 바로 조선의 개화파에 대한 적대의식으로 표출된다. 1884년 갑신정변이 발발하자, 당시 防營提督 吳兆有, 通商委員 陳樹棠, 그리고 袁世凱, 袁保齡등이 전보를 통해 수시로 조선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그들은 조선왕 이름 이경(李暎)을 직접 거론하며 무능나약하고 프랑스가 중국을 공격하는 것을 틈타서 중국의 보호를 벗어나 독립하겠다는 배반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의 이러한 脫중국自主論은 이미 권신들 중 절반이상이 동조하고 있으며, 박영효,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등 “개화당”(혹은 동양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 김윤식, 윤태준, 민영익등 “중국당”을 제거하고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프랑스와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동아시아의 大局을 좌우하는 조선에 군사를 파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위엔바오링은 조선인은 대부분 문약하고, 임오군란으로 청에 압류되어 있던 이하용(대원군)이야말로 “호걸”이며 국민의 존망을 받고 있다고 보면서, 조선이 禮義를 중시하는 것을 이용하여 왕의 부친인 이하용의 카드로 일본의 보호하에 있는 조선왕을 견제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 청조는 당시 조선왕이 의관을 바꾸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반응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바로 조공체제에 대해 禮義방면에서의 도전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편 당시 중국은 조선에 있어서 정보파악에 매우 민첩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

도의 신속성과 상당히 객관적인 분석은 중국의 조선에서의 정보망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1885년부터 1894년까지 조선에서 이 일을 책임진 인물은 바로 위앤스카이이다. 1893년 동학혁명은 바로 중국의 조선에서의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조선의 일반 국민에 대한 시각을 엿보게 해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1893년 4월 21일(음력) 위앤스카이가 리홍장에게 보고한 것을 보면, 최제우의 “術士” 내력과 향간에 전해지던 기이한 법술, 그리고 동학의 기본교리, 그리고 그 세력크기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백성들의 동학에 대한 동조는 바로 관리들의 가혹한 착취 때문이며, 여기에 실의자와 무직자(游手) 등이 가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위앤스카이는 동학도를 근본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학정을 금지하고 올바른 관리를 선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조선은 오래된 누습을 바꾸기도 어렵거니와 조선의 군신들은 그러한 의지마저 없다고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또 동학도의 세력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님에도 관리들이 미리 겁을 먹고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 그들의 나약무능을 꼬집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동학도가 일본과 서양에 대한 배척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에 대한 그의 태도이다. 그는 동학의 이러한 주장이 서양이나 일본세력이 조선에 간섭하게 하는 빌미를 주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당시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정책을 엿볼 수 있다. 사실 이는 중국내부의 개혁에 대한 태도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즉 일본처럼 서구식 개혁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군사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혁과 부분적인 개방을 통해 부강을 추구하는 양무파의 관점인데, 그러한 노선이 조선에서는 중국의 새로운 군사기술의 지원하에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중국과의 중빈관계 속에서 현 국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다시 말해 조선의 여하한 정치적 개혁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를 脫중국의 시도로 보고 강력한 간섭을 통해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결국 1894-5년 중일전쟁의 결과는 중국의 양무운동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아울러 한반도에 대한 이러한 양무파적 시각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대한제국시기: '배신'과 '운명적 거울'

1895년의 고종의 "홍범14조"와 중일간의 "마관조약"은 중국과 조선간의 중번관계를 철저히 철폐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조선과 중국은 국제조약상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은 감정상의 불복 및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1897년 대한제국으로의 국호의 개칭이전, 1895년 고종은 이미 중국과의 중번관계 속에서 규정되었던 여러 호칭을 바꾸며,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다. 그러나 조선은 여전히 일본과 러시아의 직간접적인 간섭과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와중에서 고종은 1896년 卞元圭에게 중국과 새로운 조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변원규의 통역관 朴臺榮이 6월 18일 중국의 朝鮮商務로 와 있던 탕샤오이(唐紹儀)를 방문하여 조선이 이미 독립한 만큼 새로운 조약과 외교관계(公使 파견) 체결을 완곡하게 요청한다. 이에 대해 탕샤오이는 조선왕이 러시아의 공사관에 머물고 있어 이미 자주권이 없다. 조선이 이미 타국의 보호를 받지 않고서는 자립할 수 없는 데, 이는 藩屬과 다름없다며 협상을 기피하고 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藩屬이었던 조선이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감정상 불복과 조선이 중국과 대립, 경쟁관계에 있는 러시아에 기우는 것에 대한 "배반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7월27일 중국 총리아문의 上奏에서도 보여주는 데, 上奏에서는, 마관조약에서 이미 조선은 자주국임을 인정한 이상, 각국 통례에 따르면 곧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야하지만, 조선은 오랫동안 淸의 藩屬이었기 때문에 서구 각 국과 같이 볼 수 없다. 만약 韓王이 기필코 자주국을 주장하고자하면 通商章程의 협상과 영사관 설치는 허락하되, 조약을 맺거나 공사를 파견하거나 國書를 보내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中日戰爭》(4), pp.236-239) 이러한 심정상태는 바로 아편전쟁 후 1842년 8월 29일 남경조약을 시작으로 서방 각국과 일련의 조약을 체결한 후 중국 황제가 외국사절의 접견을 기피하며 보여주었던

天朝上國의心態와 별 다름이 없다.

이상이 주로 중국 관방의 조선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라면, Kangyūwei, 량치차 오등을 중심으로 한 유신파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갑오전쟁이후 변화한 새로운 국면은 중국의 자기인식과 주변세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일종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1895년 Kangyūwei, 량치차오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公車上書”와 強學會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그 후 두드러진 변화가운데 하나가 바로 각종 학회와 잡지의 출현이다. 《強學報》와 《時務報》, 《知新報》를 비롯하여 각종 지방의 학회와 잡지가 우후죽순처럼 출현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매체의 출현은 세계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물론 당시 시국이 그러한 만큼 이러한 잡지들 속에 조선(그들은 대한제국 이후에도 여전히 조선, 고려라는 호칭과 한국이라는 호칭을 혼용하고 있다)에 대한 기사가 빈번히 실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잡지들은 외국에 대한 소식을 대부분 외국의 신문, 특히 영국, 미국, 일본과 홍콩등의 신문과 중국 내 서구인이 경영하는 신문, 예를 들면 상하이의 《字林西報》등의 기사를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에 대한 기사의 내용도 주로 조선 내외를 둘러싼 정국의 변화에 관한 외신이 대부분이며, 조선에 대한 중국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많은 편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중 우리의 이목을 끄는 한 기사가 있는데, 바로 1897년 10월 11일(음력)자 《時務報》가 10월 19일(양력)자《字林西報》에 실린 기사를 번역 게재하고 있는 “高麗近事”란의 한 토막 기사이다. 그 기사는 바로 고종의 황제 칭호와 국호의 대한제국으로의 개칭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그 어조나 표현은 당시 중국인의 조선에 대한 감정 및 인식과 별 다름이 없다.

3년 전 일본이 도발한 이후로, 고려는 누차 새로이 법을 바꾸었는데, 그 변법이 수시로 이루어져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두 좋고 나쁨을 따져보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전에 이러한 것을 보면 놀라 의아해 했으나, 이제는 하도 보고, 들어 익숙해져 버렸다. 그 중 가장 우스운 것은 스스로 너무 우쭐거리며 존호를 황제라고 바꾼 것이다. 전에 비록 고려 여러 대신들이 충분히 왕에게 존호를 바꾸도록 주청한다는 것을 들었으나, 외국인은 이를 단지 고려 대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아침쯤으로 여기고, 그럴 리 없다고 보고

무시했었다. …… 이 달 12일 다시 대관식을 거행하고 여러 신하들이 모두 축하를 하였다. 현재 (조선-역자)나라의 정사는 더욱 이전보다 못하고, 관리들의 탐오와 온갖 폐단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관매직행위가 거리낌없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새로운 법률을 정하여 각 통상항구의 상인들은 20%의 세금을 내게 하였는데, 그 내각 총리가 보고에서 (조선 왕)의 인자함과 덕은 옛 성인보다 낮고, 성정이 자애로우며, 천부적으로 총명하여 세계 어느 군주도 미치지 못한다고 칭송하였다. …… 또 듣자하니 고려정부는 조선을 대한, 혹은 대화(大華)로 개칭하여 중국을 난치하게 한다고 한다. 근래 그 나라의 폐단은 일일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중국이 가장 부패했을 때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럼에도 고려와 일본의 신문들 또한 국호를 바꾸는 것을 지지하면서 아부하고 있다 한다. (조선에 대한 호칭은 기사내용 그대로 임)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기사의 修辭속에는 조선에 대한 멸시와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황제의 존호와 국호의 개칭에 대해 한 마디로 “아동연극(兒童演劇)”이라고 회화시키고 있다. 즉 이 속에 들어난 조선의 형상을 한 마디로 말하면 “주위상황이나 주제파악도 못하고 으스스대고 있는 어린애”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한편 유신론자들은 청의 조정처럼 중국의 이해와 관련하여 조선정국의 변화에도 관심이 많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조선을 터키, 폴란드, 安南, 인도와 같은 “亡國之列”로 간주한다. 특히 조선과 안남은 중국의 “수족”으로서 이들의 외세에 의한 강점 내지 간섭은 바로 수족이 잘려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캄여우웨이, 량치차오 등의 정작 목적은 바로 조선을 중국의 미래상으로 보아, 중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데 있다. 즉 갑오전쟁이후로 그들은 조선을 바로 중국의 미래 운명으로 비유하며 중국의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운명은 이미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러시아와 같은 후발 강국의 길과 조선이나 폴란드 같은 망국의 길 가운데 서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1898년 무술변법시기 캄여우웨이의 주요 進呈書籍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俄彼得變政記》, 《日本變政考》와 《波蘭分滅記》인데, 즉 앞의 두 권은 중국이 따라야 할 후발 강국의 사례로, 뒤 한 권은 바로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직면하게 될 망국의 사례로서 젊은 光緒帝에게 進呈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선에 대한 보도 역시 조선이 영국과 러시아,

일본 등에 의해 간섭받고, 러시아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선 정부가 일본에 혹은 영국 또는 미국에 의지하거나 보호를 요청하는 기사들이 적지 않게 실리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바로 1898년 5월 1일(음력) 《知新報》(제56책)의 <韓向日英>과 6월 11일(음력) 같은 잡지(제60책)에 게재된 <追述韓王求美使保護事> 들 수 있다. 이 기사는 바로 조선이 러시아, 일본, 영국의 틈 속에서 생존과 자주권을 위해 고심분투하는 과정과, 러시아 관원의 횡포, 韓王의 미국 공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을 일본의 《長崎新報》와 《東京日日新聞》의 소식을 통해 보도하고 있다. 만약 신문 기사의 번역게재 역시 편집자의 시각의 일부를 보여준다면, 1898년 중국의 무술변법의 실패 이후, 중국 유신 세력의 청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바로 영국의《朝郵報》(1898년 10월 25일(양력)에 실린 기사를 번역한 <中高並論>(《知新報》(제73책), 1898년 10월 21일(음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기사는 같은 시기에 조선에서 있었던 독립협회 개혁운동의 실패와 중국의 무술변법의 실패를 닮은꼴로서 묘사하고, 두 정부가 곧 러시아에 삼켜질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개혁을 통한 자강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상이 중국 유신론자들의 “亡國의 像” 내지 “부정적 像”으로서의 조선관이라면, 이와 반대로 한편으로는 조선내의 개혁운동을 자신들의 개혁운동의 이웃 동맹세력으로서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時務報》(제16책, 1896년 12월 1일)의 <朝鮮大臣游歐美有感>와 <朝鮮擬編纂法典>, <朝鮮志士提唱自主>(이상 같은 잡지 제25책), <記高麗變法事>(같은 잡지, 제32책), <朝鮮維新黨人義憤>(《知新報》, 제74책, 1898년 11월 1일), <朝鮮維新黨人有成>, <朝鮮維新黨憤發情形>(이상 같은 잡지, 제75책, 제76책) 등은 바로 고종의 개혁시도와 독립협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 글들이다. <朝鮮大臣游歐美有感>은 주러시아 공사로 가 있던 민영환이 구미 각 나라를 방문하고 나서 유럽 문명에 대한 놀람과 동시에 서구인과 조선인을 비교하고 있는데, 서구인의 근면과 애국심, 그리고 폭넓은 지식을 서구 부강의 요인으로 보고 간접적으로 조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朝鮮擬編纂法典>, <朝鮮志士提唱自主>와 <記高麗變法事>는 1894년 조선의 군신이 함께 분기하여 개혁을 추진하다 좌절된 것과, 1897년 2월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환궁한 이후 재차 변법을 추진하는 내용과 좌절을 기술하고 있다. 이 중 특히 <記高麗變法事>는 1897년 5월 15일(양력) 조선에서 발행한 《西字月報》의 기사를 번역한 것으로 조선의 개혁과정을 간략하지만 조리있게 설명하고 있어 조선의 개혁을 통한 자주에의 열망과 의지를 이해하는데 유익하다. 한편 <朝鮮維新黨人義憤>, <朝鮮維新黨人有成>, <朝鮮維新黨憤發情形>은 독립협회의 종지와 정부에 대한 6조항 건의를 보도하고,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는 정신 및 조직력과 러시아 세력과 보부상들을 동원하여 이들을 탄압하는 조선 정부의 무력함과 폭력성을 동시에 기술하고 있다. 전체 내용은 사건의 진행 전말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지만, 감정이 농후한 수사는 독립협회와 이후 만민협동회의 “영웅적인 투쟁”을 서사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결말에 독립협회의 최종적인 주장이 정부에 의해 수용되는 것처럼 끝을 맺음으로써 중국의 유신변법운동에 자극을 주려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기 보도의 특징은 같은 시기 주한국영사로 있던 중국의 湯肇賢의 보고와 비교를 해보면 잘 드러난다. 《知新報》는 독립협회의 주장 그대로 趙秉式, 金禎根 등 5명을 부패한 수구세력, 반민족세력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湯肇賢은 오히려 이들을 변호하고 있다. 즉 그는 이들이 광산, 철도등 이권을 외국에 넘겨준 것은 약소국으로서 강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적인 조치로 이로 인해 이들을 문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清季中日韓關係史料》)

그러나 이러한 유신론자들의 입장과는 다른 중국의 목소리가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유신론자들의 다소 이상주의적 조선관과 비교할 때, 비교적 현실주의적 입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書客言朝鮮事> (《知新報》, 제75책)과 <韓國待我> (같은 잡지, 제124책)를 들 수 있다. <書客言朝鮮事>는 객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독립협회 자강운동을 보고 말한 것에 대한 일종의 답변형식으로 쓴 것인데, 그에 의하면 객이라는 사람이 말한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조선의 독립협회 등의 개혁으로 조선은 나라는 작지만 강해져서 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선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황인종이고 또 문자나 문화가 같아 중국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말하기를 이제 막 개혁을 시작한 조선의 기대를 바랄 수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조선이

중국을 도와주리라는 보장이 없다. 마치 갑오전쟁 때, 일본이 중국을 업고 세계에 위세를 떨쳤듯이 조선 또한 그러지 않으리라 볼 수 없다. 조선인들이 갑오 이전에는 중국을 존경과 충심으로 대했지만, 그 후에는 '우리를 해친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우리를 藩屬으로 삼고서 돌보지 않았으며, 호랑이, 이리 입에 우리를 맡겼다'라고 하며 중국을 욕하고, 능멸하고, 침을 뱉는다. 저자는 따라서 중국은 조선의 힘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書客言朝鮮事>는 바로 갑오전쟁이후 조선인의 중국인에 대한 실망과 배신, 분노가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며, 중국인과 조선인간의 감정적 유대감이 약화되어 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徐寅輝의 <答韓筆記>에서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旅順이 함락된 이후 유럽의 각 국은 모두 일본과 친하고 중국에서 멀어졌다. 조선의 아녀자들도 대부분 중국인을 보면 청나라 개라고 불렀다. 그것을 들어보면 매우 원망할 만하다. 한편 일본인이 중국인을 보면 손으로 칼날 모양으로 해서 그 목 자르는 시늉을 했는데, 즉 중국인은 모두 칼 아래 귀신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中日戰爭》(6), p.422.) <韓國待我>는 이러한 상황을 더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1901년 의화단의 난이 발생하자 서구 및 일본 등 7개 연합국이 개입하는데, 이때 조선의 한 신문에 조선도 한 독립국으로 중국의 변을 타서 다른 열강처럼 군사를 파견하거나 조중공사를 친진에 파견해야 할 것이다. 또는 말하기를 중국의 현 정세는 누란의 위기로서 공사를 보내 위문을 하여 우방국의 우의를 다 보여주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기자는 조선은 러시아 및 일본의 위협과 내부 분열로 중국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도 우쭐대며 한가하게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려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중국의 수치라고 한탄하고 있다.

4. '일본의 조선'시기: 지배역사의 기억과 혈맹

20세기 들어, 중국인들은 한반도를 러시아와 일본의 공동보호국으로 간주하게

되고, 러시아의 요동 3성에서의 군사적 팽창에 의한 직접적인 위협은 자연스럽게 조선이 중국인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하는 객관적인 배경이 된다. 이제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직접적인 패권다툼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중국의 변방근접지역의 분쟁으로서만 조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러·일간의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다툼을 관망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이후 조선에 관한 대부분의 기사는 바로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과 연관하여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 영토확장의 욕심이 강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은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지지로 돌아서면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에 대해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입헌파나 혁명파 모두 일본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다는 요인 또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여, 전쟁의 승패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귀속되게 되자, 조선 망국의 역사적 원인과 전말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말한 조선을 亡國의 像으로서 중국의 거울로 삼으려는 시도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량치차오의 <朝鮮亡國史略>을 들 수 있고, 이는 러일전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1904년 《新民叢報》(제 53, 54호)에 처음 연재되었다. 량치차오는 전통적인 중국의 藩屬이었던 조선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것을 1885년 4월 18일 중일간 체결한 “天津條約”을 들고 있다. 텐진조약은 1884년 12월 발생한 조선의 갑신정변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군이 조선에서 대치하던 국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것으로, 그 중 한 조항의 내용은 바로 이후 조선내에 중대한 변란이 발생하여 중일 양국 혹은 일국이 군사를 파견할 때는 사전에 먼저 통지하고, 사태가 진정되면 즉시 철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바로 국제법상에 따르면, 조선을 중일 양국의 공동보호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일양국의 보호상태는 바로 중일전쟁으로 끝나고, 그 이후부터 한반도는 러일 양국의 공동보호 지위로 바뀌었다고 량치차오는 보고 있다. 그리고 러일 공동보호시기 초반 즉 1896년부터 1898년까지는 주로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으나, 1898년 영일동맹부터 다시 한반도는 일본의 주도권하에 놓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영일동맹의 조항중 하나는 바로 조선에서의 일본의 정치적, 상업적, 공업적인 부분에서 특별한 이익을 지니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영국이 일본의 조선에 대한 단독 지배를 승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1904년 제1차 한일외정서에 이르러 조선은 이제 소위 “일본의 조선”으로 되었다고 량치차오는 말하고 있다.

이어서 량치차오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침탈과정을 조약체결과정을 통해 소개하고, 이와 함께 일본인 長森藤吉의 조선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한 조선의 반발과 반일투쟁을 소개하고 있다. 農鑛주식회사를 조직하여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의 침탈에 대비하는 과정과 보안회, 독립협회, 흥국협회 등 조선인의 반일 투쟁 및 의분을 동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1904년 12월 1일자 《新民叢報》(제60호)에 <日本之朝鮮>을 발표하여, 조선의 외교권, 군사권, 재무권에 이어 어어없이 경찰권마저 일본의 손에 넘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즉 한국 군인이 던진 돌에 일본 헌병이 부상당한 것을 이유로, 일본이 강제하여 조선의 참정관 신기선, 궁내대신 겸 내무대신 이용태를 면직하고, 군부대신과 법무대신 또한 사직토록 하였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조선의 자치적인 경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선의 전국 경찰권을 일본에 넘기도록 요구하였으며, 군사경찰조례를 발표하여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고 항일운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무단적인 침탈에 대해 량치차오는 약소국의 무력함과 비애를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인이 일본에 범한 것은 돌 하나 던진 것뿐이고, 부상당한 것은 한 명의 보병일 뿐이다. 부상을 입었지만 죽지 않았고, 중상이 아니라 경상을 입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로 인해 받은 것은 6명의 군 장교를 체포하여 처형하고, 정부의 4대 대신이 면직을 당했으며, 전국의 사법권이 넘어갔다…… 내 이를 통해 강권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겠다.

그러나 량치차오를 비롯하여 중국인들의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비판이 매우 무디다는 인상을 버릴 수가 없는데, 이는 당시, 즉 19세기 말-20세기 초 중국의 많은 사람들의 지배의식과 연관이 있다. 이시기 그들의 의식을 지배했던 사상으로는 우선 문명론을 들 수 있다. 문명론은 세계의 인류문명 상태를 문명과 半문명(혹은 半개화), 야만(혹은 未開)상태로 분류하고 문명세계가 半문명 혹

은 야만상태를 개화(즉 계몽)시켜 이끌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문명론은 결국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의 이론적, 윤리적 기반이 되었다. 다시 말해 문명론은 그 자체가 유럽 근대의 산물로서, 자연스럽게 유럽중심주의(지역 패권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인종주의)를 수반하였고, 이러한 사유의 근저에는 바로 진화론적 패권주의와 윤리관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맞서 비서구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일부 지식인들은 민족주의와 동방의 황인종을 중심으로 한 지역연대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의식은 그 자체에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바로 현실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지도적 역할을 승인하면서 각 민족의 자결권을 옹호하고자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찌면 이는 당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연대와는 정반대의 지역 내 제국주의와 패권주의로 나아갔고, 이러한 이상과 현실 속에서 그 지역 지식인들 중 일부는 사유상의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伊藤博文이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 피격된 직후 중국의 그에 대한 평가에서 그러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가운데, 안중근 의사의 伊藤博文 피격사건을 가장 상세하고 비중있게 다룬 것으로 혁명파의 于右任이 1909년 10월 창간한 《民吁日報》를 들 수 있다. 이 신문은 저격 다음 날인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거의 매일같이 “安-伊”소식을 싣고 있다.

《民吁日報》는 伊藤博文의 피격소식을 접한 그 다음날 사설에 그의 초상화와 함께 <聞伊藤公噩耗之雜感>을 싣고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伊藤博文의 사망에 대한 감상을 피력하고 있다. 첫째는 그를 아시아의 인물로 그리고 있다. 사설에 의하면 그는 리홍장과 더불어 아시아의 두 인물로서, 갑오전쟁으로 리홍장의 명망이 퇴색한 이후로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칭송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는 바로 인종 및 지역 간의 대결 속에서 그를 황인종과 아시아의 운명을 이끌 수 있는 인물로 그리고 있는 것인데, 따라서 그의 사망은 바로 아시아의 손실로 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유감이다. 즉 그는 아시아의 인물은 되었지만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세계적인 인물”로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세계무대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이익을

대변하고, 아시아를 연합하여 서구 열강의 침탈에 맞서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아시아에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 “同種”인 아시아인을 학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 번째는 대한제국의 운명을 염려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통치는 영국의 인도에 대한 통치나, 유럽의 유태민족, 폴란드, 네덜란드에 대한 지배에 비해 그래도 관대한 편이었는데, 이번 사건을 기회로 아마도 일본의 통치는 더욱더 엄격해 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伊藤博文에 관한 기사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한 인간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다 간 “영웅”에 대한 頌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원흉으로서 그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사가 바로 각각 세 차례 연재되었던 <論伊藤監國暗殺案>(10월 28일, 29일, 11월 2일)와 <流血之風雲兒伊藤博文傳略>(11월 2일, 3일, 5일)이다. 먼저 후자의 기사는 伊藤博文의 전기를 간략히 백화체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사생아로 태어나서 내각수상, 公爵, 統監이 되기까지 그의 삶의 역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 “영웅”에 대한 일대기에 才子佳人의 이야기식으로 그의 호색지벽을 지적하고 있어, 풍자성마저 느끼게 한다. 전자의 사설에서는 伊藤博文의 피격사건을 계기로, 국제정치에서의 정치적 암살의 유행과 그 의의, 조선인의 伊藤博文에 대한 저격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다.⁶⁾ 그 사설에 따르면 정치적 암살은 바로 국내적으로는 군주제 등 억압통치에 대해, 국제적으로는 식민통치 등 불의의 지배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조직적인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채택되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이다. 즉 “정치를 개혁하는 수단은 종종 5보를 벗어나지 않는

6) 伊藤博文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伊藤博文에 대한 평가가 바로 중국의 조선이나 안중근 의사에 대한 평가와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伊藤博文의 하얼빈등 만주 방문은 사건이 있기 전 20여일 전부터 중국정부와 지식인들의 중요한 관심사가운데 하나였다. 伊藤博文이 비롯 이번 방문은 순수히 개인적인 여행이라고 했지만, 같은 시기에 러시아 재무대신이 하얼빈을 방문하는 등, 중국을 포함한 외부에서는 모종의 정치적 밀약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주일본 중국공사는 매일 같이 관련 소식을 전보로 알리고 있었는데, 중국은 특히 이번 伊藤博文의 방문이 만주의 철도문제나 만주를 분할하기 위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즉 伊藤博文의 만주 방문은 이미 출발 전부터 조선정령에 이은 중국의 만주에 대한 야심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었고, 이러한 경계의 시선속에서 터진 저격사건은 반대로 안중근 의사에 대해 중국이 더욱 우호적이고 동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토록 했다고 볼 수 있다.

단환으로 백만 혁명군을 대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암살은 대부분 서구에서만 일어났을 뿐 아시아대륙에서는 아직 있어본 적이 없었다. 이를 사실에서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의 국민들이 겁이 많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조선의 이번 거사는 동아시아의 전체 역사중에서 한번도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암살에 대한 설명 속에 벌써 안중근과 조선인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정치적 암살에 대해 동아시아의 조선인은 천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하여, 안중근 의사의 한 행위를 조선인의 민족적 특성으로까지 확대해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려는 듯, 며칠 후 기사에는 <韓人殺賣國奴之歷史>(11월 9일)를 신고 있는데, 거기에는 김옥균, 어윤중, 우범선, 이용익, 이근택, 이용구 등에 대한 암살사건을 소개하고, 특히 군부대신 권중현에 대한 자객의 용맹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매국노의 기준은 대부분 친일파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 중 1894년 3월 28일 상하이에서 洪鐘宇에 의해 피살된 김옥균을 매국노의 항렬에 넣은 것은 중국인의 관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당시 중국의 조선에 대한 시각은 바로 중일간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고 있으며, 안중근 의사의 희생정신과 애국심, 그리고 조선인의 열정 등에 대한 찬양은 바로 중국 혁명당의 중국 국민의 각성을 겨냥한 의도적인 목적과도 연관이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哀朝鮮>(11월 9일)등 여러 기사 곳곳에서 조선에 대해 역대적으로 중국의 藩屬이었으며, 중일전쟁으로 비로소 중국의 “품”을 벗어나 잠시 독립하였다가 다시 일본의 보호국 상태로 떨어졌다고 기술하면서 과거의 종번관계를 아쉬워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일본의 조선에 대한 현재의 억압통치를 중국이 과거 속국인 조선을 통치하던 방식과 비교하며, 수백 년 동안의 속국으로 지냈지만, 한번도 암살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일본이 조선을 경찰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교적 “문명적인 방식”(이 말은 일본인이 한 말이다)으로 대했다면, 조선의 일본에 대한 저항을 중국인은 어떻게 보았을까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답의 한 단서를 우리는 1914년 11월 10일 <甲寅雜

誌》(제1권, 제4호)에 실린 천두시우(陳獨秀)의 <愛國心與自覺心>이라는 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바로 당시 조선과 조선인의 능력에 대한 중국인의 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물론 맹목적인 애국주의에 대한 경계를 목적으로 쓴 것인 만큼, 그 문맥을 심분 고려하여 읽어야 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그의 진술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수사적 표현만으로 돌리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즉 “국가의 상황을 모르고 사랑하는 것은 조선, 터키, 일본, 멕시코와 중국이 모두 그러하다. 조선은 땅이 작고 사람이 게을러, 고대에는 다른 국가의 지배를 받았다. 그리고 군주와 신하가 모두 탐욕스럽고 잔폭하기를 세계 어느 나라도 비교 할 수 없다. 그런데 일본에 합병된 이후로 모든 政事가 갖추어지고 도적이 사라졌으며, 소송을 다루지 않게 된 것이 모두 그 백성의 막대한 복이다. 그럼에도 기필코 옛 군주제를 회복하고 강한 이웃에 힘으로 맞서려고 하는데, 진실로 그렇게 하여 해로운 것은 보았어도 이익이 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를 “태평성대”처럼 말하고 있는 천두시우의 이러한 견해는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대략 1918년쯤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필자 미상의 《朝鮮見聞錄》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는 저자가 일본을 가는 길에 조선을 경유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역사적 자료를 곁들여 기술한 것으로, 저자는 곳곳에서 조선에 대한 일본인의 경영에 찬탄해 마지않고 있다.

이와 같이 안중근이나 기타 의병활동 등은 중국인들에게 조선인 특유의 강인한 저항력을 인식시켜 주었지만, 국민의 전체 자각과 자치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면서 내세운 가장 중요한 구실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구체제로의 회귀를 희망하는 완고파가 아니라, 혁명과 내부에서도 이러한 시각을 보인다는 것은 전체 중국인의 당시 조선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지를 짐작케 해준다.

중국인의 조선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1919년 3.1운동이다. 3.1운동이 중국인에게 준 인상은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조선인의 강렬하고 정열적이며 희생적인 저항정신이고, 다른 한 측면은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높은 자각의식과 평화적인 질서의식이다. 이중 전자는 이미 조선의 역사와 이전의 항일운동을 통해서 조선인의 독특한 형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라면 바로 후자를 들 수 있다. 이는 바로 1919년 3월 22일, 《新青年》중 천두시우가 쓴 <朝鮮獨立運動之感想>이나 1919년 4월 1일의 《新潮》(제1권, 제4호)에 실린 孟眞의 <朝鮮獨立運動中之新敎訓>과 穗庭의 <朝鮮獨立運動感言>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문장들은 모두 3.1운동을 혁명의 신기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그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저항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천두시우는 “이번 조선의 독립운동은 위대하고, 진실하며, 비장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관념이 있으며, 무력이 아닌 민의에 의지한 점에서 세계혁명의 신기원을 열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찬미와 애상과 흥분과 희망 그리고 부끄러움 등 각가지 느낌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이를 계기로 이후 조선에 “보다 많은 자치권리를 허용”토록 주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쑨이팅은 탄압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독립정신을 지닌 조선민족은 결코 영원히 남의 눈치나 보면서 살지는 않을 것이며,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3.1운동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民國日報》이다. 그 신문은 한국의 3.1운동이 있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근 두 달 동안 관련소식과 평론을 게재하고 있다. 3.1독립선언서와 조선청년 독립선언문, 조선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소식을 게재하는 것을 비롯하여 각 지방으로 연일 확대되어가는 독립운동을 전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탄압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특히 운동의 중심세력으로서 학생과 종교계, 그리고 노동자 등의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3.1운동관련 소식에 바로 이어지는 중국의 5.4운동의 소식은 두 운동간의 연계성을 한 눈에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우리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4월 16일자 <朝鮮復國運動大寫眞>이라는 기사이다. 기사는 한성에서 보낸 서신으로 되어있는데, 그 묘사의 생동감이 특히 뛰어나며 3.1운동의 성격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여기에 그 일단을 소개한다.

지금은 한창 봄 학기인데, 각 학교들은 아직 개학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인이 관리하는 학교는 강제로 학생을 입학시키고, 졸업장을 수여하려 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우리는 일본의 졸업장을 원하지 않으며, 독립 후 한국의 졸업장을 받겠다

며 모두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하루는 일본 경관이 이제 갓 11-2세쯤 된 여학생을 붙잡아 엄하게 물었다: 너는 왜 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는 거야. 그러자 여자아이가 태연하게 말하기를 나는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어요. 일본 경관이 다시 물기를 무슨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하자 삼천리 금수강산이요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경관은 어른들이야 좋아할 수 있다 하지만, 너 같이 어린것이 뭘 안다고 기뻐해 하며 버럭 역성을 냈다. 그러나 그 여자아이는 더 침착하게 당신은 참 모르면군요. 전에 저의 어머니가 작은 바늘을 하나 잃어 버려 한나절을 찾다가도 못 찾아 걱정하다가 후에 잡자기 찾고는 그렇게 기뻐했는데, 지금 우리는 삼천리 강산을 잃었다 장차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그것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일본 경관 역시 사람인지라 그녀를 위로하며 석방하였다.

지금 한성의 상황은 지난달 29일 1,300여명이 살해된 이후 더욱 침체되어 온 거리가 처량하기 그지없다. 전차나 자동차를 타는 조선인은 하나도 없고, 상점들도 문을 닫고 아직 열지 않고 있다. 일본 경찰이 엄하게 협박을 해도 이를 듣지 않는다. 하루는 한 일본 경관이 나이가 70여세쯤 된 노인을 잡아 상점을 열도록 강요하였다. 그러자 그 노인은 내 자식과 손주가 감옥에 갇히고, 내 동생과 친척이 나랏일로 살해되었소. 내 이제 늙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상점은 열어 뭐 하겠소. 일본 경관이 더욱 역성을 내며 내 자식과 손주 몇이나 감옥이 있지 하고 물었다. 노인은 더욱 처연해하며 어찌 내 자식과 친척들뿐이겠소. 사방을 보면 2천만 동포 가운데 감옥에 갇혀 하늘의 해를 보고있지 않는 자가 그 누가 있소? 나는 이미 늙어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일 뿐이요. 이에 일본의 경찰도 어찌할 수 없이 말없이 물러나 그 노인을 풀어주었다.

두 편의 에피소드 같은 이 기사는 11세의 어린 소녀와 70세의 한 노인을 통해 조선인의 독립에의 열망과, 일본의 탄압을 전달해 주고 있으며, 천두시우가 말한 진실과 비장감이 생동감이 있게 묘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인물의 항변 속에 국가에 대한 자각의식과 평화와 평등, 자유에 대한 의식이 연연중 드러나 있는데, 이것은 바로 3.1운동을 통해 중국인의 심중에 새롭게 형성된 한국인에 대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3.1운동의 배경이기도 한 당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제1차 세계대전 후 열리는 파리 평화회의를 비롯한 국제사회 및 사상의 새로운 변화는 중국인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일정한 영향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1895년 이후로 소원해졌던 한국과 중국은 새로이 동맹적인 관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상징적인 예로 4월 3일자에

실린 <對朝鮮獨立之同情>이라는 기사이다. 그 기사는 李劍農, 康寄遙(?) 등 331인이 4월1일 파리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이 조선의 독립문제를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국회에 청원함과 동시에 중국의 인사들이 보다 많이 조선의 독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있다. 그 중 주목되는 것은 바로 그 청원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선이 독립해야 할 네 가지 이유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중일간의 조약문제: 중일전쟁의 마관조약이나 러일전쟁의 러일조약에서 일본은 모두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후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합병한 것은 이러한 조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한일간의 합병은 국제관계상 무효다. (2) 20세기 평화문제: 이전의 중, 러, 일간의 전쟁은 모두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으로 이제 조선이 다시 쫓기하여 유럽세계가 기뻐하고 있다. 만약 조선을 벨기에나 스위스처럼 중립화하지 않으면, 이후 다시 이를 둘러싸고 전쟁이 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동아시아의 위기이고, 다시 세계의 위기이기도 하다. (3) 조선민족의 문제: 조선인의 평화적인 독립운동, 문명인적인 행동은 세계 혁명운동에서 신기원을 열었으며, 정의와 인도주의에 부합하고, 대국 같은 기백을 보여주었다. 윌슨은 민족자결주의의 기준으로 자각심과 자치능력을 제기하고 있는데, 조선인으로 말하자면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4) 중한 이해관계: 조선은 箕子의 후손 國으로 본래 중국의 혈통에 속하고, 수 천년 동안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갑오이후 중일양국이 모두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여 비로소 독립을 가로막는 조공관계가 철폐되었다. 그러나 20년도 못되어 일본에 합병되었는데, 그 후로 우리 4억 민족의 혼이 조선의 2천만 민족의 혼을 향하여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 또 조선은 중국과 국경을 인접해 있어, 조선의 안전은 바로 만주와 내륙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 지리, 민족 및 국민간의 감정, 그리고 안보관계에서 보더라도 중국은 조선의 독립에 동정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청원서 내용은 바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新舊 시각이 차종된 현대 중국인의 조선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중국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재생산해 온 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서술에 근거해 있으

며, 여기에 현대의 상호 이해관계가 덧붙여지고 있다.

5. 나오며: 민족역사에서 트랜스로컬 역사로

이상에서 본 것처럼 1870년에서 1919년까지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는 종번체제에서 상호평등체제로 그리고 비공식적 관계로 변화해 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 역시 변화해왔다. 특히 이시기는 중국이나 한반도 모두 내적인 분화와 급변하는 주위 정세로 말미암아 그 상호시각 역시 다중적으로 착종되어 있으며, 현대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시각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과정 속에서도 바로 상상과 역사가 서로 교직되어 있는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서술이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인의 한민족에 대한 기본 인식과 감정을 결정짓고 있다. 그 감정과 인식이 우호적이든 아니면 적대적이든, 문제는 상호간에 불평등한 이해와 감정상태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종번체제의 기억과 감정”이라 한다면, 현대 중국인의 한반도에 시각은 바로 종번체제의 감정에 현실이해가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한번 돌이켜 볼 것은 사실 20세기 이전의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인식은 여전히 민족과 국가를 기본 틀로 하면서 天下觀이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기실 20세기의 중국의 역사인식 및 지역인식과 별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역사인식 내지 자기인식은 바로 민족의식과 천하의식의 변형태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국경의식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인식틀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한족을 중심으로 하면서 주변 소수민족 내지 “주변민족”의 문화를 부단히 자기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한반도 및 인접 국가의 민족 및 국경의 단일화된 인식틀과 충돌의 소지가 많다. 이는 단순히 중국은 다민족국가이고, 인접 국가는 단일민족이라는 특수성간의 충돌이 아닌,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민족국가 모델이 빚어내는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고려해 볼 것은 20세기 이전의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과연 민족국가의 틀을 벗어난

다양한 정치적 세력의 부침과 다양한 문화간의 교통을 정리해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지역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모호한 개념, 한민족이라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의식, 그리고 몽고와 만주, 서역지역의 다양한 인종, 민족, 정치적 세력의 역사적 활동과 그 의의를 그 자체로서, 그 내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틀거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이는 지역이라는 통합적인 단위와 다양한 각 단위소(민족/인종/정치세력/문화-생활주체단위)를 동시에 사고하는 것으로서 특정 민족의 패권화된 역사서술과 인식을 넘어설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